

한노 문학번역에서 고유명의 러시아어 음소 표기와 번역전략에 관한 고찰*

강 동 희
(한국외대)

1. 서론

2021년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한국의 고유명¹⁾ ‘불고기, 치맥, 한류, 오빠, 떡방’과 같은 표제어 30여 개가 새로 등재되었다(박성준 2021.10.6). 방탄소년단의 ‘Butter’가 빌보드 핫100에서 1위에 올랐고,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K-콘텐츠의 세계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

*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삼은 고유명의 분류 방식, 표기 및 번역전략 유형은 저자의 미출간 박사학위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고, 본고에서는 문학번역에 등장한 고유명을 데이터로 수집해 분석했음을 밝힌다.

1) 해당 언어의 문화와 민족적 특성이 담긴 어휘를 일반적으로 서양의 번역학에서는 ‘문화 관련 용어’, 러시아의 번역학에서는 ‘реалия(realia)’, 국어학에서는 ‘고유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고유명’이라는 용어는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구나 문장 등 다양한 층위의 언어형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송원용 2002: 280-283) 본고에서는 한국의 고유문화와 관련된 ‘김치, 한복, 가야금’과 같은 보통명사를 포함해 해당 언어권의 민족적 색채와 문화적 특성이 담긴 어휘로 정의한다.

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고유명이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류의 흐름은 문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의 현대문학도 세계문학으로 인정받으며 해외에서의 번역 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한국 문학작품은 2010년 10월까지 1,564권이었고, 2020년 10월 기준 총 4,314권이었던(한국문학번역원 2021: 10). 러시아어권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 번역서의 수만 보더라도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한현희 2018: 322), 2020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5+5 한러 공동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문학작품을 각 5권씩 공동으로 교차 번역하여 출간하는(한국문학번역원 2020.11.17) 등 K-문학의 세계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고유명은 러시아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러시아에서 2012년과 2022년 2번 번역 출간되었는데, 2012년 출간된 번역본에서 저자명 ‘신경숙’은 Кун Сук Шин[Kun Suk Shin]²⁾으로 표기되었고, 2022년 출간된 역서에서는 Син Гёнсук[Sin Gjonsuk]으로 적었으며³⁾, 신경숙의 또 다른 작품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Кун-Суук Шин[Kun-Suuk Shin]⁴⁾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인명을 다르게 표기한다면 독자들은 이 세 작품의 작가를 모두 다르게 인식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 고유명이 러시아어로 다양

-
- 2) 본고에서는 러시아어 음소 표기와 번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괄호([]) 안에 러시아어에 대응되는 로마자를 적었고, 표기 방식은 러시아 국가표준 GOST 16876-71 「키릴문자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랐다.
- 3) 러시아에서 2012년과 2022년 번역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의 번역서는 각기 다른 번역가가 번역을 맡았고, 제목 또한 2012년 역서에서는 『Пожалуй 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엄마를 부탁해)』로, 2022년에 번역된 역서에서는 『Прошу, най ди маму (엄마를 찾아줘)』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었다. 출처: <<https://library.ltikorea.or.kr/translatedbooks/25516>>, <<https://www.labyrinth.ru/books/827502/>>
- 4)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2016년 러시아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제목은 『Я буду рядом (네 곁에 있을게)』으로 번역되었다. 출처: <https://library.ltikorea.or.kr/ebooks/405666>

하게 표기 및 번역되는 사례는 다른 고유명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명 ‘광주’는 『코리아나』 계간지에 실린 김미월의 단편소설 『프라자호텔』의 러시아어 번역본에서는 Кванчжу[Kvanchzhu]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러시아어 역서에서는 Кванджу[Kvandzhu]로 /ㅈ/의 표기를 전자는 /чж/[chzh]로 표기하고, 후자에서는 /дж/[dzh]로 다르게 적고 있었다. 두 작품이 비록 서로 다른 작품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고유명을 일관성 없이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러시아어 원어민 독자가 한국의 동일 지명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실제 존재하는 고유명의 번역은 번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칭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통시적으로도 변함없는 통일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정경일 2012: 220).⁵⁾ 선행 번역가의 번역은 이후 다른 번역가가 번역 시 참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합한 기준에 따라 고유명의 속성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된 번역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고유명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객체의 고유한 특성은 물론, 그가 속한 문화의 지역적 민족적 특성까지도 담고 있는 어휘이므로(김재희 2010; Похолоккова [포홀코바] 2014: 62) 문화간 소통의 매개체인 문학번역에서도 고유명의 특성은 잘 전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유명의 번역은 소리와 글자의 표면적 특성만 보더라도 그 고유명이 어느 문화권 또는 어느 나라의 이름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Виноградов[비노그라도프] 2001: 150). 따라서 문학번역에서 고유명의 번역은 단순히 음차 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출발어의 민족적 색채와 문화적 특성을 옮기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번역학의 한 분야이다(Влахов

5) 물론 언어는 시대적 상황, 인증의 요구나 기호에 따라 항상 변화하므로 번역과 표기 규범의 경향 또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1939년 최초의 통일된 한글 로마자 표기 체계인 ‘매쿰-라이샤워 표기법(McCune-Reischauer Romanization)’에서는 전자법을 따랐고, 이후 1948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에서는 전자법과 전자법을 절충해 적용했으며, 1959년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전자법을, 1984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2000년 이후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전자법을 표기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일부 개정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영어에서 부재한 한국어 음소 표기 및 유·무성음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던 반달표(˘)와 어긋점(˙)을 없애고,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지 않고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쓰도록 하고 있다(정희원 1997: 28; 양병선 2021: 82-88).

and Флорин[블라호프, 플로린] 2012: 17). 또한 독자들은 문학번역에서 고유어의 문화적 특성이 묘사된 이국적 분위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만큼(김엘레나 2016: 102) 문학번역은 타 문화와의 소통의 창구이며 이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된다(이혜승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노 문학번역 텍스트에서 한국어 고유명의 표기 양상과 번역전략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합한 번역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노 문학번역에서 고유명의 표기와 번역전략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한노 문학번역에서 고유명의 표기와 번역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번역가의 모국어가 고유명 표기와 번역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한노 문학번역에서 한국어 고유명에 적합한 러시아어 번역전략 방안은 무엇인가?

2. 고유명 표기와 번역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고유명의 번역은 출발어의 음성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음소 표기 방식과 고유명의 속성을 전달하기 위한 번역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본 절에서는 한국어의 러시아어 음소 표기법과 문학번역에서 논의된 번역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2.1 한국어의 러시아어 음소 표기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법에는 홀로도비치 표기법(Холодoвич[홀로도비치] 1954/2010)과 콘체비치의 표기법(Концевич[콘체비치] 2001)이 있다. 콘체비치 표기법은 홀로도비치의 표기법을 대부분 유지하되 몇몇 음소의 표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에도 두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아 동일 음소가 다르게 표기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난다.

〈표 1〉 러시아의 두 표기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음소들⁶⁾

자음			모음		
한글	홀로도비치 표기법	콘체비치 표기법	한글	홀로도비치 표기법	콘체비치 표기법
중성 ㄹ	л [l]	ль [l']	ㅓ	о (open o)	о ⁷⁾ [o]
중성 ㅇ	нъ [n'']	н(нъ) [n(n'')]	ㅕ	ѳ ѳ [jo]	ѳ [jo]/ ѳ о ⁸⁾ [jjo]
어중 ㅈ	чж [chzh]	дж [dzh]	ㅙ	ѳ о [jjo]	ѳ [jo]/ ѳ о [jjo]
			ㅞ	ѳ ѳ [je]	ѳ я [jja]

러시아의 두 표기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음소 표기로는 자음은 ‘ㄹ, ㅇ, ㅈ,’ 이고, 모음은 ‘ㅓ, ㅕ, ㅙ, ㅞ’이다. 예를 들면, 지명 ‘제주도’의 경우 홀로도비치 표기법을 따르면 остров Чечжудо[island Chechzhudo]로 표기되지만, 콘체비치 표기법을 따른 사례에서는 остров Чеджудо[island Chedzhudo]로 표기된다. 즉 모음 또는 공명음 뒤 어중 초성 /ㅈ/은 러시아의 두 표기법에 따라 /чж/[chzh]와 /дж/[dzh]로 다르게 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표기법을 동일한 한국어 고유명 또는 음소가 러시아어로 다르게 표기된 사례의 분석 도구로 삼았다.

한국어의 일관된 러시아어 표기 및 번역 지침이 없다 보니 번역 방식 또한 일관되지 않고 다르게 번역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콘체비치 표기법에서는 고유명의 분류 항목별로 번역 방식을 제시하지만(Концевич[콘체비치] 2001), 실제 사례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또는 영어 사례를 참조해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으로는 한국어 고유명의 통일된 러시아어 표기법 부재, 고유명의 표기와 관련된 지식 및 전문가 부족, 영어 등의 매개어를 통한 중역 문제를 꼽을 수 있다(Концевич[콘체비치] 2001; Гурьева[구리예바] 2014). 한국어를 로마자로 옮기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존재하나 이는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제정된 지침이므로⁹⁾ 다른 언어권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김경희 2006: 407). 따라서 키

6) 표는 강동희(2021: 46)의 표를 수정·보완해 인용했다.
 7) 콘체비치 표기법은 실용 표기법으로 /ㅓ/의 학술용 표기는 [ö, ɔ]로 쓰도록 하고 있다(Концевич 2018).
 8) 콘체비치 표기법에서 /ㅕ/의 학술용 표기는 [ѳ ö, ѳ ɔ]로 쓰도록 하고 있다(ibid.).
 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외에도 한국어 고유명의 외국어 표기 규범에는 공공용어

릴문자를 사용하고 로마자와는 음성체계가 다른 러시아어 표기와 번역에 적합한 지침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2 문학번역에서 고유명의 번역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본고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고유문화와 관련된 어휘로, 번역학에서는 학자에 따라 고유명사, 고유어(cultural words), 문화적 특정 항목(culture-specific items), 문화 관련 어휘(culture-bound lexis), 한국 고유문화 용어, 문화관광콘텐츠 용어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한다(Newmark 1988: 94; Franco Aixelà 1996; 최희섭 2010: 273-274 재인용; 이근희 2008; 남성우 2006: 125; 추승희 2018: 7-8; 정호정과 최소희 2020: 61). 본 절에서는 문학번역에서 이와 같이 지칭되는 용어의 번역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문학작품에서 고유명 번역을 위한 도구로는 원어차용, 음성번역, 의미번역 등의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며, 고유명의 특성, 번역의 시기, 목적, 대상에 따라 상이한 번역전략이 취해질 수 있다(유명우 2000: 237-238; 김순영 2007: 15-16; 김정우 2008: 72; 이예안 2010: 160). 즉 문학번역에서 번역전략은 번역가가 두 문화의 중재자로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도출된 협상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성승은 2011: 163; 금지아 2015: 7-8; 이성엽 2020: 124).

문학번역에서 한국어 인명 등 고유명사의 번역에 대해 고찰한 논문(김경희 2006, 2016; 박효진과 박윤희 2015)에서는 고유명의 특성에 따라 번역 사례를 분석해 번역전략의 유형을 분류했다. 김경희(2016: 7-8)는 고유명사를 번역할 때 고유명사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음차 번역만으로 해당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전달할 수 있는 ‘단순 고유명사’와 음차 이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특수 고유명사’로 구분한다. 비노그라도프(Виноградов

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 정부 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도로명의 로마자 등 표기 방법 안내」가 있지만, 이러한 규범 및 권장안 대부분은 영문 번역과 표기를 위한 것이고, 이 중 2020년 7월 제정·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만이 영어 이외에 중국어와 일본어의 번역 및 표기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2001: 149-197)는 고유명사 번역의 범주를 일반 고유명사(обычные имена собственные)와 의미 내포형 고유명사(смысловые имена собственные)로 구분한다. 즉 일반 고유명사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인명, 현실에 존재하는 지명 등이 이에 속하고, 의미 내포형 고유명사는 문학작품 등에서 풍자적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이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면 인물의 특성과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해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명의 번역은 음성번역에 해당되는 음차 번역만을 당연시하기보다는, 원문에서 등장한 고유명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은유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면, 음차만이 아닌 다른 번역전략을 통해 풍자적 의미의 실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성승은 2011: 147; 박효진과 박윤희 2015: 194-195). 이에 따라 고유명의 번역전략은 음차, 음차+직역, 음차+본문 설명, 음차+주석, 직역, 도착어 문화의 이름으로 대체, 생략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번역전략은 독자가 아동인지 성인인지, 또는 아동이더라도 저학년 또는 고학년인지를 고려해 자국어 및 이국어 전략이 취해질 수 있고, 독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화 및 번안을 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을 추가하거나 생략하기도 한다(이현경 2014: 221; 조성은과 최은경 2014: 202-203). 이는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번역가가 보상 또는 강화해 메워 줌으로써 독자가 낯선 타문화를 친화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권병철 2016: 47-48; 김재희 2018).

한편 한영 문학번역에서 한국인 번역가와 원어민 번역가의 코퍼스를 통해 문체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번역이 원어민 번역에 비해 명시화하는 경향을 보인 걸로 나타났다(최희경 2016). 본 연구에서는 특정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가와 또는 공동 번역의 조합에 따라 고유명 번역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에 대한 논의는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현황을 다루거나(한현희 2018), 또는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러시아어 번역전략을 분석한 연구(서유경 2012)가 있고, 한국 문학 작품의 러시아어 번역에서의 문제점을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차이의 문제로 분류해 살펴보거나(김엘레나 2016) 또는 더 세분화하여 사회문화적 배경, 호칭, 언어적 차이, 역사적 사실, 관용적 표현, 문체적 요인으로 정리한 연구(이혜승 2010)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표기와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강동희 2019; 2021), 해당 연구에서는 인명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러시아어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결과를 문학번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영어와 그 외의 외국어에서 고유명의 번역을 문화 관련 어휘의 번역전략 관점에서만 다루었고, 음소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유명에는 그 어휘가 속한 언어의 음성적 특성도 담고 있으므로 번역 시 소리와 의미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바운드 문학번역 시 한국어 고유명이 지닌 음성적 특성의 전달을 위한 표기의 측면과 의미 전달을 위한 번역전략의 측면에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노 문학번역에서 한국어 고유명이 러시아어로 표기 및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적합한 번역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러시아어 역서의 한국 문학 작품은 김진경의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채만식의 『태평천하』,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황석영의 『낮익은 세상』,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로 총 7권이다. 이 문학 작품들은 각각 번역가의 모국어 조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데, 즉 한국인과 러시아어 원어민이 공역한 작품 2종, 러시아어 원어민 2인이 공역한 작품 1종, 러시아어 원어민 1인 단독으로 번역한 작품 2종, 한국인 1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작품 2종이다. 이처럼 번역가의 구성이 다른 작품을 각각 선정한 이유는 번역가의 모국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고유명의 표기와 번역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한국 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에 있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¹⁰⁾, 이것이 실제 7권의 역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10) 콘체비치(2014)는 한국어에서 모음 또는 공명음 뒤에 어중 초성 /ɰ/은 반유성음이기 때문에 /ɰɰ/[dzh]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홀로도비치 표기법에 따라 /ɰɰ/[chzh]의 표기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ɰɰ/[dzh]의 표기가 한국어가 아

또 어떠한 표기법을 적용해 번역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가의 조합에 따라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문학작품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번역 및 표기 분석 대상 문학작품 목록

No.	번역가 조합	작품명 - ST	작품명 - TT ¹¹⁾
1	한국인, 러시아어 원어민 공역	김진경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	Ким Чжинкён[Kim Chzhinkjon] 『Кошачья школа. Пророчество сбывается』 [고양이 학교, 예언이 이루어지다]
2	한국인, 러시아어 원어민 공역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Ким Эран[Kim Eran] 『Я буду скучать』 [보고 싶을 거야]
3	러시아어 원어민 2인 공역	채만식 『태평천하』	Чхэ Мансик[Chkhe Mansik] 『В эпоху великого спокой ствия』[태평천하]
4	러시아어 원어민 단독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Кон Джиён[Kon Dzhijon] 『Наше счастливое время』[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	러시아어 원어민 단독	황석영 『낮익은 세상』	Хван Согён[Khvan Sogion] 『Привычный мир』 [낮익은 세상]
6	한국인 단독	정이현 『너는 모른다』	Чон Ихён[Chon Ikhjon] 『Тебе ли знать』[너는 모른다]
7	한국인 단독	한강 『소년이 온다』	Хан Ган[Khan Gan] 『Человеческие поступки』[인간적 행동]

<표 2>에서 보다시피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과 『두근두근 내 인생』은 한국인과 러시아어 원어민이 공역하였고, 『태평천하』는 러시아어 원어민 2인이 공역한 작품이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낮익은 세상』은 각각 러시

닌 다른 외국어의 발음을 상기시키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는 영어의 러시아어 표기법에서 영어의 음소 /dʒ/를 /дж/[dzh]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11) 러시아어 역서의 제목 옆 대괄호(()) 안에 적은 한국어는 연구자가 역번역(back-translation)한 것이다.

아어 원어민이 단독으로 번역했고, 『너는 모른다』와 『소년이 온다』는 각각 한국인 번역가가 단독으로 번역한 작품이다.

본 연구는 수집된 총 411개의 고유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작품에서 적용된 러시아어 표기법과 번역전략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고유명의 속성별로 러시아어 음소 표기와 번역전략에 관한 방안 제시를 목표로 삼았다.

한국어 고유명의 표기법 분석을 위해 이론적 틀로 삼은 것은 러시아의 두 표기법으로 수집한 고유명이 홀로도비치 표기법과 콘체비치 표기법 중 어떠한 표기 방식을 따랐는지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두 표기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음소는 어중 초성 /ɤ/으로 수집한 고유명이 홀로도비치 표기법에 따라 /ɤx/[chzh]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콘체비치 표기법에 따라 /ɤx/[dzh]를 사용했는지를 통해 분석했다.

다음으로 고유명의 번역전략 분석을 위해 수집한 고유명을 고유명의 속성에 따라 인명, 조직 및 단체명, 자연지명, 인공시설명,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 교통 관련 시설명, 작품명, 한식명, 기타 고유명의 9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고유명의 분류는 강동희(2021: 35)의 <한국어 고유명의 속성별 분류표>를 참조하였고, 본고는 문학 텍스트에 등장한 고유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몇몇 분류 항목을 수정·보완했다. 이 분류표(ibid.)에는 인공지명의 하위항목에 ‘관광지명’을 포함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공 시설의 명칭을 더욱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분류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공시설명’으로 수정했다. 강동희(ibid.)의 표는 국립국어원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한국어 고유명사 분류표를 토대로 한 박은경(2001)의 분류와 한국어의 러시아어 번역전략을 제시한 콘체비치(Концевич 2001)의 분류를 참조한 것으로 한국어 고유명과 러시아어 고유명 표기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위의 9개의 분류 항목을 고유명의 분류를 위한 분석 틀로 사용했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한 411개의 한국어 고유명을 각각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번역전략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작품별 고유명의 하위항목 및 번역전략

비중과 각 고유명의 항목별 번역전략 유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에서는 번역 사례가 고유명의 특성을 잘 반영해 전달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고유명 속성에 적합한 번역전략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았다. 한국어 고유명에 적합한 러시아어 표기와 번역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된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해당 번역 사례가 고유명의 음성과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4.1 작품별 고유명의 번역전략 양상

고유명의 표기와 번역은 해당 고유명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른 번역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목표인 한국어 고유명에 적합한 러시아어 번역전략 방안 제시를 위해 우선 고유명을 9개의 하위항목으로 분류했다. 7개의 작품별 고유명의 비중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작품별 고유명의 하위항목 비중

고유명의 분류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	두근두근 내 인생	태평천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낮익은 세상	너는 모른다	소년이 온다	합계
인명	41 (79%)	22 (42%)	25 (29%)	19 (35%)	13 (27%)	14 (27%)	23 (35%)	157 (39%)
조직 및 단체명	3 (6%)	2 (4%)	5 (6%)	2 (4%)	1 (2%)	9 (17%)	8 (12%)	30 (7%)
자연지명	0 (0%)	1 (2%)	1 (1%)	1 (2%)	0 (0%)	1 (2%)	2 (3%)	6 (1%)
인공시설명	0 (0%)	2 (4%)	6 (7%)	4 (7%)	0 (0%)	1 (2%)	6 (9%)	19 (4%)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	0 (0%)	2 (4%)	8 (9%)	12 (22%)	1 (2%)	16 (31%)	13 (20%)	52 (13%)
교통 관련 시설명	0 (0%)	0 (0%)	3 (3%)	0 (0%)	0 (0%)	4 (8%)	0 (0%)	7 (2%)
작품명	0 (0%)	10 (19%)	8 (9%)	0 (0%)	2 (4%)	1 (2%)	0 (0%)	21 (5%)
한식명	0 (0%)	3 (6%)	2 (2%)	6 (11%)	20 (41%)	4 (8%)	4 (6%)	39 (11%)
기타	8 (15%)	10 (19%)	29 (33%)	10 (19%)	12 (24%)	2 (4%)	9 (14%)	80 (18%)
합계	52 (100%)	52 (100%)	87 (100%)	54 (100%)	49 (100%)	52 (100%)	65 (100%)	411 (100%)

가장 많이 수집된 고유명 항목은 ‘인명’으로 3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기타’가 18%,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이 13%, ‘한식명’이 11%, ‘조직 및 단체명’이 7%, ‘작품명’ 5%, ‘인공시설명’ 4%, ‘교통 관련 시설명’ 2%, ‘자연지명’ 1%의 순이었다. 판타지 동화인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에서는 장르의 특성상 한국의 지명과 한식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작품에서는 소설의 배경을 한국으로 설정하고 있어 한국의 지명, 한식명, 상호명 등이 골고루 등장했다. 이러한 고유명 하위항목의 비중은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¹²⁾, 본고에서 인명의 비중이 컸던 이유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수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이 수집된 고유명은 ‘기타’ 항목인데, 이 분류 항목에는 한국의 민족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아리랑’ песня «Ариран»[song «Ariran»], ‘마루’ мару[maru], ‘두루마기’ турумаги[turumagi] 등이 이에 속한 고유명들이다.

다음으로 고유명을 번역전략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음차’, ‘고유부¹³⁾만 음차’, ‘음차+주석’, ‘의미역’, ‘영문표기’, ‘변형’의 6가지 번역전략이¹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품별로 번역전략의 비중을 정량적으로

-
- 12) 한국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글에서는 고유명의 항목 중 ‘관광지명’이 22%,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이 19%, ‘인명’이 17%, ‘교통 관련 시설명’이 11%의 순으로 고유명 하위항목의 비중이 컸다(강동희 2021: 116).
- 13) 고유명은 ‘고유부’와 ‘의미부’로 구성될 수 있는데, ‘고유부’는 고유명에서 보통명사를 제외한 고유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의미부’는 고유명의 보편적 특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가리킨다(강동희 2021: 15). 예를 들면, ‘한강’에서 ‘한’을 고유부, ‘강’을 의미부라고 칭한다. 한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서는 ‘고유부’를 ‘전부(前部) 요소’, ‘의미부’를 ‘후부(後部) 요소’라 하는데, ‘전부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하고, ‘후부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제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14) ‘전체 음차’와 ‘고유부만 음차’한 번역전략에는 고유명 전체 또는 고유부만 음차하고 의미부는 의미역을 추가한 전략도 통계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고유명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province Kjongido]는 ‘경기도’를 전체 음차하고 ‘도’를 의미역한 경우 ‘전체 음차’로 분류했고,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province Kjongi]의 사례는 ‘경기도’에서 고유부인 ‘경기’만 음차하고 ‘도’는 음차하지 않고 의미역만 한 경우 ‘고유부만 음차’한 번역전략으로 분류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작품별 번역전략의 비중

번역전략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	두근두근 내 인생	태평천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낮익은 세상	너는 모른다	소년이 온다	합계
전체 음차	18 (35%)	34 (65%)	42 (48%)	27 (50%)	9 (18%)	36 (69%)	34 (52%)	200 (48%)
고유부만 음차	3 (6%)	2 (4%)	6 (7%)	8 (15%)	0 (0%)	2 (4%)	17 (26%)	38 (9%)
음차+주석	0 (0%)	0 (0%)	27 (31%)	18 (33%)	26 (53%)	2 (4%)	0 (0%)	73 (17%)
의미역	24 (46%)	13 (25%)	11 (13%)	1 (2%)	14 (29%)	8 (15%)	13 (20%)	84 (21%)
영문표기	0 (0%)	3 (6%)	1 (1%)	0 (0%)	0 (0%)	4 (8%)	1 (2%)	9 (2%)
변형	7 (13%)	0 (0%)	0 (0%)	0 (0%)	0 (0%)	0 (0%)	0 (0%)	7 (2%)
합계	52 (100%)	52 (100%)	87 (100%)	54 (100%)	49 (100%)	52 (100%)	65 (100%)	411 (100%)

<표 4>에서 보듯이 본고에서 수집한 한국어 고유명의 번역전략 중 가장 많이 적용한 방식은 ‘전체 음차’로 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체 고유명에서 비중이 큰 번역전략으로는 ‘의미역’ 21%, ‘음차+주석’ 17%, ‘고유부만 음차’ 9%, ‘영문표기’ 2%, ‘변형’ 2% 순이다. 한편 본고에서 ‘전체 음차’가 가장 많이 사용된 원인은 본고에서 선정한 문학 텍스트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고유명의 하위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인의 인명은 대체로 음차가 주를 이루는데 본고에서 분석대상인 문학작품에서는 인명의 비중이 높아 번역전략 방식의 빈도수에서도 전체 음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본고의 분석 작품 중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은 동화 장르로 원천텍스트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내포한 의미를 도착어에서도 보존해 전달하기 위한 번역전략으로 ‘의미역’의 비중이 4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유명의 번역이 텍스트 장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번역전략이 취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2 한국어의 러시아어 음소 표기 양상

러시아어 표기 유형을 살펴보면 작품별로 러시아의 두 표기법 중 하나의 표기법에 따라 고유명을 표기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두 표기법을 혼용하거나 어떠한 표기법도 따르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작품별로 러시아어 표기의 유형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작품별 러시아어 표기 유형

러시아어 표기법	작품명	사례
홀로도비치 표기법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 (한국인, 러시아어 원어민 공역), 『소년이 온다』 (한국인 단독)	민준 Минчжун[Minchzhun] 대진 Тэчжон[Techzhon]
큰체비치 표기법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러시아어 원어민 단독), 『너는 모른다』 (한국인 단독), 『태평천하』 (러시아어 원어민 2인 공역)	문유정 Мун Юджон[Mun Judzhon] 대진 Тэджон[Tedzhon] 시조 сиджо[sidzho]
홀로도비치 표기법과 큰체비치 표기법 혼용	『두근두근 내 인생』 (한국인, 러시아어 원어민 공역) 『낮익은 세상』 (러시아어 원어민 단독)	박지윤 Пак Чжиюн[Pak Chzhijun] 서태지 Со Тхеджи[So Tkhedzhi] 소주 соджу[sodzhu] 소주 сочжу[sochzhu] 짜장면 чачжанмён[chachzhanmjon] 된장찌개 твенджанччигэ [tvendzhanchchige]

본 연구의 설계에서는 번역가의 모국어 또는 조합 유형에 따른 고유명 표기 방식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번역가의 언어 조합을 다양하게 하여 분석 작품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한국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2개 작품은 각각 러시아의 다른 표기법을 따랐고, 한국인과 러시아어 원어민 2인이 공역한 작품 또한 각기 다른 표기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번역가의 모국어 또는 공역인의 언어 조합은 음소 표기 방식에 있어 뚜렷한 경향성을 관찰하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한노 문학번역에서 러시아어 표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고유명이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어 지명

‘대전’은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에서 어중 초성 /ʃ/의 표기를 /tʃ/[chzh]로 사용하도록 하는 홀로도비치 표기법을 따랐지만, 반면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러시아의 두 표기법을 혼용해 어중 초성 /ʃ/의 표기를 홀로도비치 표기법에 따라 /tʃ/[chzh]로 표기하기거나, 또는 콘체비치 표기법에 따라 /dʒ/[dzh]로 표기해 두 표기법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품에서 표기법 혼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명 ‘박지윤’에서 /ʃ/은 자음 뒤 초성으로 두 표기법 모두 /tʃ/[ch]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분석 사례에서는 /tʃ/[chzh]를 사용해 표기했고, 또한 ‘서태지’와 ‘소주’는 모음 뒤 어중 초성 /ʃ/을 /dʒ/[dzh]를 사용해 동일 작품 내에서 다양한 표기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소년이 온다』와 『너는 모른다』 역시 전자는 홀로도비치 표기법을 후자는 콘체비치 표기법을 따랐다. 러시아어 원어민이 단독 번역한 작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낮익은 세상』에서는 전자는 콘체비치 표기법을, 후자는 러시아의 두 표기법을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소체계가 상이해 한국어의 음소가 러시아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음소들이 몇몇 존재하는데, 그중에는 모음 /ɲ/도 포함된다. 러시아의 두 표기법은 이 음소의 표기를 /ɲ/의 표기와 동일하게 러시아어 자모 /j/[jo]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어에서 각기 다른 /ɲ/와 /j/[jo]의 표기를 러시아어로 동일하게 /j/[jo]로 표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의 분석 사례 중 러시아어 원어민이 단독으로 번역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고유명 ‘여관’을 Ёгван[Joqvan]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즉 강세를 /j/[jo]의 다음 음절 /a/[a]에 두어 앞 음절 모음 /j/[jo]를 약화하려 한 시도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추후 추가적인 음성 분석 실험을 통해 타당성이 보완된다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ɲ/의 표기방식을 해결하는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글 자모 /o/은 종성에 올 때 러시아어 두 표기법에서 /ɲ/의 표기와 동일하게 /n/[n]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너는 모른다』에 등장한 인명 ‘강미숙’에서 종성 /o/을 /n/[ng]를 사용해 Канг Ми Сук[Kang Mi Suk]으로 표기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너는 모른다』는 한국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작품인데 종성 /o/은 한국인에게 있어 종성 /ɲ/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음소이기에 이를 구별하여 /n/[ng]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고의 사례에서는 성씨 표기의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러시아어 원어 민이 단독으로 번역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닥터 노’의 성씨 ‘노’를 북한식 발음 ‘로’로 표기해 Доктор Ро[Doctor Ro] 번역한 사례가 있었다. ‘노’는 실제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한다면 Ho[No]로 적는 것이 적합하며, 성씨의 표기 또한 실제 한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한국인의 성씨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음소 표기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전사법을 따르는 추세인데, 이때 음운 변화도 표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광탄리 묘지’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등장한 사례로 동일 작품에서 동일한 한국어 고유명이 하나는 кладбище Квантханни[cemetery Kvantkhanni]이고, 다른 하나는 Квантхалли [Kvantkhalli]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었다. 한국어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ㄴ+ㄹ’의 조합은 /ㄴㄹ/[ll]이 되어 발음되는데, 다만 ‘광탄리’와 같은 단어는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예외에 속하여, [광탈리]가 아닌 [광탄니]가 국어 어문 규정에 맞는 발음이다. 한편 ‘광탄리 묘지’는 인공시설명이지만, 행정구역명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만약 ‘광탄-리(廣灘里)’가 행정구역을 가리킨다면, 이때는 ‘리’가 행정구역 단위명임을 알 수 있도록 붙임표(-)를 사용해 구분해 주고, 단위명 앞뒤에 있는 자모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행정구역을 표기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¹⁵⁾

4.3 고유명의 항목별 번역전략 양상

고유명의 번역은 고유명이 지닌 속성에 따라 번역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고유명의 분류 항목에 따라 문학작품에서의 번역전략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3.1 인명의 번역전략 유형

인명의 번역에서는 전체 음차, 고유부만 음차, 음차+주석, 의미역, 변형 등

1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과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서는 행정구역명과 도로주소명을 표기할 때 단위명 앞에 붙임표(-)를 넣어 표기하고,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번역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124	79%	157 (100%)
고유부만 음차	1	1%	
음차+주석	3	2%	
의미역	23	15%	
변형	6	4%	

인명의 번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번역전략은 전체 음차로 7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의미역이 15%를 차지했다. 의미역의 유형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분석 작품인 『고양이 학교 - 시작된 예언』에서 장르가 판타지 동화인 만큼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도착어에서 친숙히 부르는 이름으로 의미역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라소니’는 도착어에서 의미적 등가를 이루는 Линкс[Lynx]로 번역했고, ‘버들이’는 버드나무의 러시아어 Ива[willow]의 의미를 반영해 Ив[willow]로 번역했으며¹⁶⁾, 마찬가지로 보통명사로 구성된 ‘털보 선생님’도 Учитель Бородач[Teacher Bearded]로 의미역을 했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아예 다른 뜻의 이름으로 변형한 사례는 6개로 4%를 차지했는데, 등장인물 ‘리브레터’는 러시아어에서 ‘강한’, ‘건강한’의 의미를 지닌 Валентинка[Valentinka]로 번역했다. 이는 동화 속 등장인물의 성격을 고려해 그 의미가 담겨있는 러시아어 어휘를 골라 독자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변형한 것이다. 인명의 번역에서 음차와 주석을 함께 사용해 번역한 경우는 3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모두 나타났다. 두 개의 이름은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춘향이’와 ‘이몽룡’, 나머지 하나의 이름은 ‘심심이’로 진돗개의 이름이다. 이름의 음차와 주석을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심심이’는 Симсим[Simsim]으로 음차를 해주었고, 여기에 ‘심심하다’의 의미와 개가 조용하고, 착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뜻으로 ‘심심이’의 뜻을 주석에서

16) ‘버들이’의 러시아어 번역 Ив를 음차하면 [Iv]인데 작품 속 ‘버들이’는 남성이므로 러시아어에서 남성명사는 자음으로 끝나는 특성에 따라 버드나무를 뜻하는 러시아어 Ива[Iva]에서 모음 a[a]를 탈락하고 Ив[Iv]로 남성 명사화했다.

설명하고 있다.¹⁷⁾

『소년이 온다』에서 ‘박 양 мисс Пак[miss Pak]’, ‘김 양 мисс Ким[miss Kim]’, ‘윤 대리 помощник редактора Юн[assistant manager Jun]’, ‘정 사장 директор типографии Чон[printing Director Chon]’에서는 호칭을 의미역을 했지만, ‘임 선생님’의 러시아어 번역 Лим *сонсэнним*[Lim *sonsennim*]에서는 ‘선생님’을 음차하고 기울임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후 ‘선생님’의 호칭이 다시 등장한 지면에서도 ‘선생님’을 그대로 음차하고 기울임 표시와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сонсэнним*»[*sonsennim*]으로 고유명을 구분해 주었는데, 맥락의 흐름을 보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깎듯한 경어로 한국어에서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주기 위한 번역전략으로 보인다.

4.3.2 조직 및 단체명의 번역전략 유형

조직 및 단체명은 번역전략의 유형별 비중이 의미역 40%, 고유부만 음차 30%, 영문표기 17%, 전체 음차와 음차+주석이 각각 7%를 차지했다.

〈표 7〉 조직 및 단체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2	7%	30 (100%)
고유부만 음차	9	30%	
음차+주석	2	7%	
의미역	12	40%	
영문표기	5	17%	

조직 및 단체명을 의미역한 사례는 대부분 『너는 모른다』에서 수집되었는데, 비문학 텍스트 장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한은행’ банк «Шинхан»[Bank «Shinkhan»]의 사례와 같이 고유부는 음차하고 그 외 보통명사는 의미역하는 경향이 있다.¹⁸⁾ 하지만 소설 『너는 모른다』에 등장한 상호명 ‘북경루’는 한자

17) ‘심심이’의 음차 Симсим[Simsim], 주석 ‘Симсимхада означает скуку. Здес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пес был тихим, смирным, послушным. [‘심심하다’는 무료함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조용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개를 가리킨다.]’

18)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텍스트의 고유명 번역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조직 및 단체명을

의 의미를 풀어서 ‘북경의 정원’을 뜻하는 «Пекинский сад[Beijing Garden]»로 의미역했고, 고유명임을 나타내기 위해 러시아어에서 통용되는 문장부호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구분해 주었다. 그밖에 『소년이 온다』에서는 ‘5·18연구소’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18 мая» [research center «May 18»]로 의미역했다. 조직 및 단체명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이름 등을 포함할 때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써오던 방식을 고려해 표기 및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 된다.¹⁹⁾ 상호명이나 조직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사례로는 ‘공화춘’ «Gonhwachun»과 ‘엘지(LG)’ «LG»를 들 수 있다. 음차+주석의 사례로는 『태평천하』에서 ‘향교’를 음차해 хянгё[khjangjo]로 표기하고 주석²⁰⁾을 달았다.

4.3.3 자연지명의 번역전략 유형

본고에서 수집된 자연지명은 모두 6개로 다른 고유명의 하위항목에 비해 많지는 않았다. 자연지명의 번역전략으로는 전체 음차와 고유부만 음차한 방식이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전체 음차가 67%, 고유부만 음차한 전략은 33%였다.

〈표 8〉 자연지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4	67%	6 (100%)
고유부만 음차	2	33%	

전체 음차를 한 사례로는 『너는 모른다』에서 ‘대부도’를 전체 음차하고 ‘도(島)’는 의미역해 остров Тэбудо[Island Tebudo]로 번역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등장한 ‘양재천’은 ‘양재’만 음차하고 ‘천’은 의미역해 ручей Яндже[stream Jandzhe]로 번역했다.

번역할 때 ‘고유부만 음차’한 비중이 56.7%로 가장 컸다(강동희 2021: 123).

- 1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20) ‘향교’의 주석 ‘провинци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 эпоху Чосон(1392-1897), одновременно служившее и конфунцианским храмам, и школой. [조선시대(1392-1897) 유교 사원과 학교의 역할을 했던 지방의 기관.]’

4.3.4 인공시설명의 번역전략 유형

인공시설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비중은 고유부만 음차가 53%, 의미역 26%, 전체 음차 11%, 음차+주석과 영문표기가 각각 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공시설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2	11%	19 (100%)
고유부만 음차	10	53%	
음차+주석	1	5%	
의미역	5	26%	
영문표기	1	5%	

고유부만 음차한 사례로는 『소년이 온다』에서 ‘대인시장’을 ‘대인’은 음차하고 ‘시장’은 의미역을 해 рынок Тэин[market Tein]으로 번역했다. 의미역한 사례는 같은 작품에서 ‘산업선교회’를 Промышленная миссионер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Industrial missionary organization]로 번역했다. 『태평천하』에서 ‘동대문’은 전체 음차해 Тондэмун[Tondemun]으로 표기했지만, 설명이나 주석은 달지 않았다. 반면 ‘부민관’은 전체를 음차해 Пумингван[Pumingvan]으로 표기하고 주석²¹⁾을 달았다.

4.3.5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의 번역전략 유형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의 번역전략 유형으로는 전체 음차 69%, 고유부만 음차한 사례가 31%를 차지했다.

〈표 10〉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36	69%	52 (100%)
고유부만 음차	16	31%	

21) ‘부민관’의 주석 ‘общественное здани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Сеуле.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1910-1945) там проходили митинги, призывающие население к войне. [현 서울에 있는 공공건물. 일제강점기(1910-1945) 국민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가 열린 장소.]’

『태평천하』에서 ‘안국동’은 동일한 작품 내에서 두 가지의 번역전략을 각각 적용해 다르게 번역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전체 음차한 Ангукдон [Angukdon]의 사례와 고유부인 ‘안국’만 음차를 하고 ‘동’은 음차하지 않고 의미역만 한 рай он Ангук[*district Anguk*]의 사례가 모두 나타났다.

4.3.6 교통 관련 시설명의 번역전략 유형

교통 관련 시설명의 사례는 본고의 분석 텍스트에서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모두 7개의 고유명이 수집되었다. 번역전략 유형은 전체 음차 57%, 고유부만 음차한 사례가 43%로 나타났다.

〈표 11〉 교통 관련 시설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4	57%	7 (100%)
고유부만 음차	2	43%	

전체 음차의 사례인 ‘대광교’는 전체를 음차하고 ‘교’를 의미역을 해 мост Тэгван-гё[*bridge Tegwan-gjo*]로 번역했으며 ‘교’ 앞에 붙임표(-)를 넣어 구분해 주었다. 고유부만 음차한 사례는 ‘죽전휴게소’ станция отдыха «Чукчон» [*rest station «Chukchon»*]을 들 수 있다.

4.3.7 작품명의 번역전략 유형

작품명의 번역 사례에서는 의미역의 비중이 76%로 가장 높았고, 전체 음차와 음차+주석이 각각 10%를 차지했으며, 고유부만 음차한 사례는 5%였다.

〈표 12〉 작품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2	10%	21 (100%)
고유부만 음차	1	5%	
음차+주석	2	10%	
의미역	16	76%	

작품명의 의미역 사례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대체로 많았는데, 책 이름

『바둑 첫걸음』은 «Первые шаги в шахматах»로, 『골프란 무엇인가』는 «Что такое гольф»로, 『초급 일본어』은 «Самоучитель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로 번역해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의미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음차한 사례로는 ‘아리랑’ «Ариран»[Ariran]이 있었고, 노래 제목 ‘목포의 눈물’은 ‘목포’는 음차하고 ‘눈물’은 의미번역을 해 «Слезы Мокпо»[Tears of Mokpo]로 번역함과 동시에 주석²²⁾을 달아주었다. 『태평천하』에 등장한 작품명 ‘춘향전’은 고유부만 음차하고 ‘전’을 의미역을 해 «Сказание о Чхунхян» [Story of Chkhunkhjan]으로 번역했다.

4.3.8 한식명의 번역전략 유형

한식명의 번역은 음차+주석의 비중이 56%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의미역 33%, 전체 음차 10%를 차지했다.

〈표 13〉 한식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4	10%	39 (100%)
음차+주석	22	56%	
의미역	13	33%	

음차+주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계란말이’는 전체를 음차해 Керанмари [Keranmari]로 표기하고 주석²³⁾을 달았다. 『너는 모른다』에서는 한식명 ‘바지락 칼국수’의 번역은 음차 없이 ‘바지락이 들어간 국수’의 의미로 «Лапша с моллюсками[Noodle with clam]»로 번역을 했고 어느 정도 알려진 한식명은 추가적인 설명 없이 전체 음차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부대찌개’, ‘김치’, ‘소주’와 같은 음식명은 각각 пудэччигэ[pudechchige], кимчи[kimchi], соджу[sodzhu]로 설명이나 주석 없이 전체 음차해 표기했다.

22) ‘목포의 눈물’의 주석 ‘известные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한국의 유명 대중가요.]’

23) ‘계란말이’의 주석 ‘Омлет по корейски. [한국식 오믈렛.]’

4.3.9 기타 고유명의 번역전략 유형

기타 고유명에는 한국과 관련된 명절, 의복, 악기, 놀이 등의 명칭이 포함되었는데, 번역전략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음차+주석의 번역전략이 54%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음차 20%, 의미역 16%, 고유부만 음차가 5%, 영문표기 4%, 변형의 번역전략 사례가 1%의 순이었다.

〈표 14〉 기타 고유명의 번역전략 유형별 빈도수

번역전략	개수	비율	합계
전체 음차	16	20%	80 (100%)
고유부만 음차	4	5%	
음차+주석	43	54%	
의미	13	16%	
영문표기	3	4%	
변형	1	1%	

‘추석’의 번역은 음차+주석의 번역전략을 사용해 чхусок[chkhusok]으로 표기하고 주석²⁴⁾을 달았다. ‘태권도’는 전체를 음차해 тхэквондо[tkhekvondo]로 표기하고 설명이 추가되지 않았다. 고유부만 음차한 사례로는 ‘부마항쟁’ восстание в Пусане[uprising in Pusan]을 들 수 있다. 변형의 사례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도착어 문화에서 다른 구호를 사용한 유사한 놀이로 대체해 игра “Морская фигура на месте замри”[“바다 동물들이 그대로 멈춰라” 놀이]로 번역했다.

4.4 소결 및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번역전략 방안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 고유명은 러시아어 문학번역에서 일관되지 못한 방식으로 표기 및 번역되고 있었다. 한국어의 러시아어 음소 표기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에 러시아에서 고안된 두 가지 표기법이 각각 다른 표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번역가들은 서로 다른 표기법을 참조하

24) ‘추석’의 주석 ‘корей 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к, отмечаемый 15-го числа восьмого лунного месяца (обычно попадает на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음력 8월 15일에 기리는 한국의 전통명절(보통 9-10월에 해당).]’

여 표기하다 보니 중구난방 식으로 동일한 한국어 고유명이 러시아어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었다.

한편 번역가의 모국어가 러시아어인지 한국어인지, 또는 모국어가 다른 번역가의 공역 여부에 따른 뚜렷한 양상은 보이지 않아 사실상 번역가의 모국어와 번역가 조합은 고유명 표기와 번역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한국의 고유명이 번역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거나, 동일한 작품 내에서도 러시아의 두 표기법이 혼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도착어의 독자들이 한국의 고유명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고유명을 9개의 하위항목으로 분류해 번역전략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번역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속성의 고유명을 번역할 때 음차의 범위와 의미번역의 여부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일관된 번역 결과물이 나올 수 없을뿐더러 도착어에서 한국어 고유명이 지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한국어의 정체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한국어 고유명의 특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러시아어 번역전략 방안을 다음의 <표 15>와 같이 제시한다.

<표 15>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번역전략 방안²⁵⁾

고유명의 분류	번역전략	예시 ²⁶⁾
인명	-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으로 쓰고, 이름은 붙여서 표기한다.	이몽룡 Ли МонгрёнГ [Li Mongrjong]
조직 및 단체명	- 보통명사는 의미역하고, 고유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차한다.	신한은행 банк «Синхан» [bank «Sinkhan»]
자연지명	- 전체 음차하고 속성은 의미역한다. - 고유부 첫 자는 대문자로 쓴다.	갈미봉 вершина КальмибонГ [peak Kal'mibong]
인공시설명	- 의미부가 1음절인 고유명은 전체 음차하고 의미부는 의미역한다. - 의미부가 2음절 이상인 고유명은 고유부만 음차한다. - 고유부 첫 자는 대문자로 쓴다.	동대문 ворота ТонгдэмуН [gate Tongdemun] 양동시장 рынок ЯнгдонГ [market Jangdong]

25) 강동희(2021: 149)에서 제시한 방안을 수정·보완해 작성했다.

26) 예시는 본고의 분석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번역전략 방안에 따라 수정해 제시했다.

행정구역및 도로주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음차하고, 행정구역의 속성은 의미역한다. - 구, 동, 로, 대로, 동과 같은 단위명 앞에 붙임표(-)를 넣고, 붙임표(-)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일곡동 рай он Ильгок-тонг [area Il'gok-tong] 충장로 улица Чхунгджанг-ро [street Chkhungdzhang-ro]
교통 관련 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음차하고 고유명의 속성은 의미역한다. 	대광교 мост Тэгванггё [Bridge Tegvanggio]
작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명사는 의미역하고, 고유명사는 음차하여 겹화살괄호(«»)로 구분한다. - 도착어 언어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새롭게 번역하거나 영문 제목을 참조해 번역할 수 있다. 	아리랑 песня «Ариранг» [song «Arirang»] ‘눈 이야기’(시 제목) стиха «Снежная история» [poem «Snow Story»]
한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음차하고,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구분한다. 필요시 한식에 관한 정보를 의미역하여 병기한다. 	된장찌개 «твенджангчигэ» [tvendzhangchige] (корейское традиционное рагу с соевой пастой)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스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음차하고 겹화살괄호(«»)로 구분한다. - 관련 정보는 필요시 의미역하여 병기한다. 	시조 сиджо[sidzho] (жанр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оэзии) [한국 운문의 장르]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문학 작품의 러시아어 번역에서 나타난 고유명의 러시아어 표기와 번역전략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어 고유명에 적합한 러시아어 번역전략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한노 문학번역에서 한국어 고유명은 작품별로 또는 동일 작품 내에서도 홀로도비치 표기법 또는 콘체비치 표기법을 적용하여 한국어의 동일한 음소가 러시아어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었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고유명이 지닌 소리의 특성과 그 고유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전략 또한 동일한 속성의 고유명에 대해 음차와 의미번역의 방식을 달리하여 고유명이 가리키는 대상을 충분히

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본고에서는 앞 절의 <표 15>와 같이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번역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 대한 확산으로 한국어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한국어 고유명의 표기와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어 고유명은 한국어와 한국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어 고유명의 외국어 표기와 번역은 한국어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노 문학번역 연구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표기와 번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다양한 텍스트 장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주제를 넓혀나갈 수 있고, 다른 언어 방향에서 고유명의 표기와 번역전략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분석자료는 한노 번역수업 교실, 번역 실무 등에서 고유명의 러시아어 번역 시 참고할 수 있어 번역교육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면에서도 연구의 신뢰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본고에서 수집된 411개의 고유명은 적지 않은 데이터로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고유명의 표기의 양상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다른 텍스트 장르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언어에서 고유명의 표기와 번역 연구를 수행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데이터 선정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텍스트 장르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러시아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고에서 제안한 번역전략 방안에 대한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표기 및 번역 지침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동희 (2019) 「한국어 인명의 러시아어 번역·표기의 문제점 고찰」, 『통번역학연구』 23(2): 1-22.
- 강동희 (2021)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표기법과 번역전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병철 (2016) 「양반전의 문화 특징적 요소 번역기법 소고」, 『번역학연구』 17(5): 33-51.
- 금지아 (2015)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6(3): 7-26.
- 김경희 (2006) 「한국문학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에서의 고유명사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68: 407-426.
- 김경희 (2016) 「한불문학번역에서의 인명 번역에 관한 고찰」, 『프랑스어문교육』 53: 7-32.
- 김순영 (2007) 「문학작품에서의 고유명사의 번역」, 『통번역교육연구』 5: 5-18.
- 김엘레나 (2016) 「한국 문학텍스트 번역 연구」,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99-105.
- 김재희 (2010) 『한국어-아랍어 광고 텍스트 번역 분석에 관한 연구: 문화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 (2018)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방법: 한·영, 한·아 번역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연구』 9(2): 27-48.
- 김정우 (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연구』 9(2): 67-93.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박은경 (2001) 「고유명사의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22.
- 박효진, 박윤희 (2015) 「한영 문학 번역에서의 이름 및 지칭어 고찰」, 『국제어문』 64: 193-214.
- 서유경 (2012)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전략 연구: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87-219.
- 성승은 (2011) 「그림책의 고유명사 번역에 관한 고찰」, 『국제언어문학』 24:

143-169.

- 송원용 (2002) 「문장형 고유명의 형태론」, 고영근 (편저), 『문법과 텍스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77-294.
- 양병선 (2021) 『공공용어 영문 표기 규정 및 방안』, 서울: 한국문화사.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이근희 (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번역의 정의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엽 (2020) 「고유명사 불한 번역 분석: 2000년대 번역 출판된 프랑스 그림 책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2): 97-138.
- 이예안 (2010) 「일한문학번역작품의 고유명사 번역에 대한 연구-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9: 147-162.
- 이현경 (2014) 「아동문학의 문화소 번역연구 - 유머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193-225.
- 이혜승 (2010) 「외국인에 의한 한국 문학번역 고찰 - 러시아어 문학 번역 실습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199-220.
- 정경일 (2012) 『국어 로마자표기의 오늘과 내일』, 서울: 역락.
- 정호정, 최소희 (2020) 「번역표기 훈령과 공공번역 표준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후 번역 실태 연구」, 『영미연구』 48: 157-190.
- 정희원 (1997)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7(2): 27.
- 조성은, 최은경 (2014) 「문화특정 어휘 번역 전략 연구: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나타난 음식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1): 187-207.
- 최희경 (2016) 「한영 문학 번역 문체 연구: 코퍼스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3): 193-216.
- 최희섭 (2010)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국보 명칭 영문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1(1): 271-291.
- 추승희 (2018) 『영어교과서 한국 고유문화 용어 영문표기에 대한 연구』,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문학번역원 (2021)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해외출간도서 1527』,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한현희 (2018)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 현황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9(4): 321-360.
- Franco Aixelá, Javier.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Álvarez, Román and M. Carmen 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52-78.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Hall International.
- Виноградов, Виктор А. [비노그라도프 빅토르 А.] (2001) *Ведение в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общие и лекс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번역학 입문 (개론과 어휘)],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ститута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О.
- Влахов, Сергей and Сидер Флорин [블라호프 세르게이, 플로린 시데르] (2006) *Непереводимое в переводе* [번역의 불가역성], 5th edition, М.: R. Valent.
- Гурьева, Анастасия А. [구리에바 아나스타시야 А.] (2014). 'К проблеме «естественности» перевода (на примере русской транскрипции корейских слов)' [번역의 '실제성'에 관한 문제: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 사례를 중심으로], in *Proceedings of the 2014 Науч.-прак. семина. «Насущные Вопросы Кирилл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Собственных.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Унификации Системы Транскрипции»* [2014 학술대회 '한국어 고유명사의 키릴문자 표기 현안. 표기법의 주요 문제점'], Москва, 54-60.
- Концевич, Лев Р. [콘체비치 레프 R.] (2001) *Корееведение.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한국학. 논문집], М.: ИД «Муравей -Гай д».
- Концевич, Лев Р. [콘체비치 레프 R.] (2014)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ледовать единой русской практической транскрипции корейских слов' [한국어의 러시아어 실용 표기법 통일에 대한 필요성 고찰], in *Proceedings of the 2014 Науч.-прак. семина. «Насущные Вопросы Кирилл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Собственных.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Унификации Системы Транскрипции»* [2014 학술

대회 ‘한국어 고유명사의 키릴문자 표기 현안. 표기법의 주요 문제점’,
Москва, 4-15.

Концевич, Лев Р. [콘체비치 레프 R.] (2018) *Словарь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назва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равочное пособие*. [대한민국 지명 사전], М.: Наука -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оходкова, Екатерина А. [포홀코바 예카테리나 A.] (2014) ‘О передаче реалий и имен собственных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усский : Основные правила и ошибки перевода’ [한국어 고유명과 고유명사의 러시아어 번역: 주요 지침과 번역 오류], in *Proceedings of the 2014 Науч.-практ. семина. «Насущные Вопросы Кирилл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Собственных.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Унификации Системы Транскрипции»* [2014 학술대회 ‘한국어 고유명사의 키릴문자 표기 현안. 표기법의 주요 문제점’], Москва, 61-73.

Холодович, Александр А. [홀로도비치 알렉산드르 A.] (1954/2010)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한국어 문법 개론서], Изд. 2-е.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КИ.

<인터넷 자료>

박성준 (2021. 10. 6) 「“한류가 옥스퍼드영어사전 휩쓸었다”... K단어 대거 등재에 화제», 『세계일보』, 2021년 10월 9일 검색.

한국문학번역원 (2020. 11. 17) 「한-러 문학교류, 수교 30주년 기념 ”5+5“공동출간 성료», 『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1년 9월 9일 검색.

<분석 자료>

김진경 (2001) 『고양이 학교 (1부 3권)-시작된 예언』, 파주: 문학동네.

김애란 (2011) 『두근두근 내 인생』, 파주: 창비.

채만식 (2010) 『태평천하: 채만식 작품선』, 김경수 엮음. 서울: 현대문학,

공지영 (2010)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서울: 오픈하우스.

황석영 (2011) 『낮익은 세상』, 파주: 문학동네.

- 정이현 (2009) 『너는 모른다』, 파주: 문학동네.
- 한강 (2014) 『소년이 온다』, 파주: 창비.
- Ким Чжинкён [Kim Chzhinkjon] (2019) *Кошачья школа. Пророчество сбывается* [고양이 학교. 예언이 이루어지다], Чун Ин Сун, Погадаева А. В., перевод [Chun In Sun, Pogadajeva A.V. 역]. М: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 Ким Эран [Kim Eran] (2020) *Я буду скучать* [보고 싶을 거야], Гуделева Александра, Сын Чжуён, перевод [Gudeljova Aleksandra, Syn Chzhujon 역], М: «Гиперион».
- Чхэ Мансик [Chkhe Mansik] (2020) *В эпоху великого спокойствия* [태평천하], Анна Дудинова, Евгения Розенфельд, перевод [Anna Dudinova, Jevgenija Rozjenfel'd 역]. М: Текст.
- Кон Джиён [Kon Dzhijon] (2020) *Наше счастливое время*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Кузина С. В.,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Kuzina S.V. 역], М: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 Хван Согён [Khvan Sogjon] (2020) *Привычный мир* [낯익은 세상], Крутова Дарья, перевод [Krutova Dar'ja 역]. М: «Гиперион».
- Чон Ихён [Chon Ikhjon] (2020) *Тебе ли знать* [너는 모른다], Ким Со Джун, перевод [Kim So Dzhun 역]. М: «Гиперион».
- Хан Ган [Khan Gan] (2020) *Человеческие поступки* [인간적 행동], Ли Сан Юн [Li San Jun 역]. М: «АСТ».

[Abstract]

A Study on the Phonetic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Strategies of Proper Names in Korean-to-Russian Literature Translation

Donghee K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anslation types of proper nouns that appear in the Russian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present an appropriate strategy in translating Korean proper nouns into Russian language. For this study, the paper selected seven Korean literary works translated into Russian, which includes *Cat School: Started Prophecy* by Kim Jin-kyung, *My Brilliant Life* by Kim Ae-ran, *Peace Under Heaven* by Chae Man-sik, *Our Happy Time* by Gong Ji-young, *Familiar Things* by Hwang Sok-yong, *You Don't Know* by Jung Ihyun, and *Human Acts* by Han Kang. These works were either co-translated by native Korean and Russian speakers, or by two native Russian speakers, or by a single native Russian speaker, or a single native Korean speaker. By selecting translated works published with a different makeup of translators, this study reviewed and observed which Korean-to-Russian notational systems were used - Holodovich system or Kontsevich system - in translating proper nouns depending on the translators of different native language. The study also categorized different types of translations into entire transliteration, transliteration of proper nouns only, a combination of transliteration and translator's notes, meaning-based translation, notation in English, and variation to identify the translation strategy of proper nouns into Russian. A review of the Russian translation of Korean proper nouns showed that all seven works applied different notation and translation strategies. Sometimes, proper nouns were notated and translated into different versions even within the same literary work.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translation strategy that will remove confusion caused by disparate

translations of proper nouns for Russian reader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and to deliv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properties of Korean proper nouns in a precise and consistent manner.

Keywords: Russian transcription, proper nouns, Korean proper names, translation strategies, literary translation

주제어: 러시아어 표기법, 고유명사, 한국어 고유명, 번역전략, 문학번역

강동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특임강의교수

yulia.kang@gmail.com

관심분야: 고유명, 번역전략, 표기법, 문학번역

논문 투고: 2022년 2월 6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2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3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3월 22일